

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모두발언(2.4.)

-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지금 우리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“AI 혁명의 시대”에 살고 있습니다.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.
 - AI라는 신대륙은 소수의 탐험가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. 우리 모두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이 될 것입니다. 이 신대륙 탐사에 국민 모두가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
-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,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.
 - 또한, 우리 경제·사회의 “구석구석까지 AI와 기술혁신이 뿌리”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.

[국가 농업 AI 플랫폼 추진방안]

- 그 일환으로 오늘 국가 농업에 AI를 접목하는 AI 플랫폼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.
 - 기후위기, 인력부족과 같은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 AI를 적용하여 AI 전환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.
-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2,900억원 이상을 출자*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연내에 설립하겠습니다.
 - * 정부 최대 1,400억원 출자, 민간 지분 51% 이상으로 구성
- AI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병충해와 질병을 진단하는 농·축산 AI 솔루션을 개발하여 농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.
 - 이를 통해 고령 농민과 초보 농업인 누구나 전문적으로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더 나아가 한국의 스마트팜 모델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스마트 온실과 축사*를 개발하고 수출도 해 나가겠습니다.
 - * (1~2세대) 관리자(농민)가 원격제어 → (3~4세대) 관리자 없이도 AI·로봇이 원격·정밀제어

[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방안]

- 두 번째로, 공공조달 분야도 AI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.
- AI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하여 혁신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.
 - AI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,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.
 - * (요건완화) 납품실적(3천만원) 면제, 다수공급자계약시 신용평가등급 확인 면제
 - 혁신제품 평가 시에는 'AI 전용 트랙'을 신설하는 등 AI 제품이 공공에 신속하고 쉽게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.
- 공공조달 행정에도 AI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.
 - 이를 통해 제품 분석 및 평가, 공공 공사비 산정, 비축물량 조정 등도 AI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선진화하겠습니다.

[KS 인증제도 개편방안]

- 마지막으로, KS 인증제도를 60년만에 개편하여 AI와 로봇 등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
 - 기존의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자와 설계자도 KS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심사방식을 다양화하겠습니다.
 - * (現) '공장심사' 필수 → (改) '제품심사'만으로도 발급, 공장 없이도 인증 획득 가능
 - KS 인증을 도용한 불법 제품이 수입·유통되지 않도록 통관단계부터 더욱 강력하게 조사하고 대응하겠습니다.
- 다음으로 농식품부 장관님께서 국가 농업 AX 플랫폼, 산업부 장관님께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, 조달청장님께서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.
(농식품부, 산업부, 조달청 모두발언)
-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